

No. 2014-01

# 일본 경제 동향

(Japan Weekly Economic Digest)

2014. 01. 06

## 1. 일본경제지표

## 2. 2014년 일본경제전망

- ① 2013년도 일본경제
- ② 2014년도 경제전망
- ③ 2014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과제

## 1. 일본경제지표

### □ 주간 시황지표

- 엔화환율 : 미일 금리차 확대에 따른 엔매도 증가로 약세
- 장기금리 : 엔저·주가 상승에 따른 국채매도 증가로 상승(국채가격 하락)세

구 분	12.24(화)	12.25(수)	12.26(목)	12.27(금)	12.30(월)
엔화의 대미달러화 환율(달러당)	104.20	104.35	104.70	104.90	105.30
엔화의 대원화 환율(100엔당)	-	-	1,015.27	1,010.68	1,001.90
닛케이평균주가(종가)	15,889.33	16,009.99	16,174.44	16,178.94	16,291.31
장기금리(10년물 국채금리, 연리%)	0.680	0.695	0.710	0.705	0.735

### □ 주요 거시경제지표

- 2013년 3분기 실질 GDP성장율(2차 속도치)은 전기비 0.3%, 연율 1.1%로 1차 속도치에 비하여 낮아졌으나 4분기 연속 플러스
- 2013년 11월 무역수지는 수출 감소와 원유 등 연료수입 증가로 적자폭이 13조 엔으로 확대  
\* 對한국 무역수지는 1.2천억 엔 흑자로 흑자폭이 축소

구분	2012	2013											
	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실질GDP증가율(연율%)	1.2(2.0)	4.1			3.8			1.1(P)			-		
수 출(천억엔)	639(637)	48	53	63	58	58	61	60	58	60	61	59	-
수 입(천억엔)	721(707)	64	61	66	67	68	62	70	67	69	72	72	-
對한국 수출	49.7(49.1)	4.01	4.25	5.21	5.07	4.61	4.54	4.77	4.59	4.57	4.64	4.33	-
對한국 수입	32.8(32.4)	3.12	2.92	2.81	2.58	2.85	2.57	3.04	2.78	2.72	3.29	3.10	-
직접투자(억달러)	(1,223)	234			331			479			-		
對한국 투자	(40)	7.7			9.1			8.6			-		
소비자물가(전기비,%)	▲0.2(0.0)	▲0.3	0.1	0.3	0.3	0.2	0.0	0.1	0.3	0.1	0.2	0.0	-
실업율(%)	(4.4)	4.2	4.3	4.1	4.1	4.1	3.9	3.8	4.1	4.0	4.0	4.0	-
경상수지(천억엔)	42.9(47)	▲3.6	6.4	12.5	7.5	5.4	3.4	5.8	1.6	5.9	▲1.3	-	-
엔화 환율	82.9(80.1)	89.2	93.2	94.8	97.7	101.0	97.4	99.7	97.9	99.2	97.9	100.0	103.46
환율비교 (7월 환율기준)	(1,413)	1,197	1,166	1,161	1,148	1,100	1,165	1,130	1,142	1,095	1,090	1,064	1,022
외환준비고	12.5(12.7)	12.7	12.6	12.5	12.6	12.5	12.4	12.5	12.5	12.7	12.8	12.8	-
국채금리(10년 연리%)	0.580	0.740	0.665	0.560	0.600	0.860	0.855	0.795	0.720	0.680	0.590	0.600	0.735

주1. ( )는 역년(1~12월)기준

2. 소비자물가, 실업률, 환율은 기간평균, 자료 : 닛케이신문, 재무성, 한국은행
3. (P)는 2차 속도치

### □ 주요 보고서 워칭 사이트(report watching site)

- 『중소 모노크루리기업의 도전』 신금중앙금고지역중소기업연구소, 12월28일  
\*출처: <http://www.scbri.jp/PDFsangyoukigyousc79h25F09.pdf>

## 2. 2014년 일본경제 전망

- 2013년도 일본경제는 금융완화와 공공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한 아베노믹스의 효과로 3분기에 성장률이 둔화되기는 했으나, 2분기 고성장으로 연간 2.6%의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
- 2014년도에는 4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으로 2013년보다는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이나 이에 관한 일본정부와 민간싱크탱크 간의 전망이 엇갈림
  - 민간싱크탱크는 소비세증세로 인하여 개인소비가 감소하여 0.7%~0.8%의 GDP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는데 비하여,
  - 일본정부는 경제대책과 임금인상 촉진 노력 등으로 개인소비가 감소하지 않는다고 보고 1.4%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
- 일본정부는 2014년도에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 일본부흥 전략을 가속화·강화할 방침
  - 기술개발과 산업구조고도화 등을 통한 성장력 강화와 임금상승, 제조업의 공동화방지를 위해 민간투자를 환기시킬 수 있는 성장전략의 구체화 및 실행이 과제

### 1 2013년도 일본경제

#### □ 경기회복과 고성장

- 2012년 2분기와 3분기에 마이너스를 보인 실질 경제성장률은 2012년 4분기에 연율 0.6%의 플러스로 반전되어, 2013년 1분기에는 4.5%, 2분기에는 3.6%의 고 성장을 보임
- 3분기에는 성장률이 1.1%로 둔화되었으나 1분기와 2분기의 고성장에 대한 반동일뿐 여전히 경기회복이 지속
-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2013년도 실질 GDP성장률을 2012년도의 1.2%를 크게 상회하는 2.6%로 전망

#### □ 아베노믹스의 기여

- 2013년 일본경제의 회복을 가져다준 최대 요인은 장기간의 디플레이션 탈출에 목표를 둔 아베노믹스에 있음

- 아베노믹스는 목표달성을 위해 대담한 금융정책, 기동적인 재정정책, 민간투자를 환기하기 위한 성장전략 등 이른바 3개의 화살을 가동
- 3개의 화살 중, 2013년 경기회복에 가장 기여한 것은 첫 번째 화살인 대담한 금융정책임
  - 2013년 3월 취임한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2년간 2%의 물가상승을 목표를 제시하고 통화공급량을 2년간 2배로 늘리는 새로운 차원의 금융완화를 시작
  - 그 결과 엔화의 대미달러환율이 2012년말 80엔대에서 2013년 4월 초에 100엔 정도로 급속도로 엔고가 수정되었고, 이후 100엔대의 엔화환율이 계속됨
  - 엔저에 의한 수출기업의 채산성 개선으로 2013년 초부터 주가의 상승세가 지속함에 따라 자산효과 등을 통해 소비자심리가 개선되고 개인소비와 주택투자가 회복
  - 개인소비의 회복에 의해 비제조업의 경영실적이 호전되고, 주가상승과 고용회복을 통하여 다시 개인소비가 회복되는 선순환 구조
  - 한편, 장기금리는 금융완화 직후 불안정한 현상을 보였으나, 이후 저금리가 유지됨에 따라 기업들의 자금조달비용 저하에 기여
- 두 번째 화살에 의한 공공투자 확대도 경기부양에 기여
  - 기동적인 재정정책 역시, 2012년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의한 공공투자 확대 등을 통하여 2013년 일본경제의 회복에 기여
  - 이토츠허제연구소에 따르면, 공공투자는 2013년 3분기까지 1년간 19% 증가하여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0.8%포인트 끌어올렸는데, 2013년 3분기 경제성장의 1/3이 공공투자에 의한 부분임
  - 다만, 기동적인 재정정책에 의한 공공투자확대가 재정규율면에서는 충분한 배려가 없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

#### □ 디플레이션의 탈출 조짐 확산

- 아베노믹스가 목표로 한 디플레이션 탈출도 2013년에 큰 진전을 보임
  - 소비자물가승율이 2012년 12월 ▲0.1%에서 2013년 10월에는 0.9% 플러스로 반전되었는데, 그 주된 원인은 엔저와 국제 원재료가격 상승의 영향에 의한 에너지와 식품가격의 상승에 있음
  - 그러나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.3%로 플러스권에 진입, 디플레이션 탈출을 향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

- 이 같은 물가상승율에는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기대상승율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
- 일본은행에 의한 인플레이션 목표 설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금융완화가 경제주체들의 기대물가상승율을 끌어올렸고, 엔저 등의 영향에 의한 실제 물가상승율의 상승도 기대물가상승율을 끌어올렸음
- 기대물가상승율의 상승으로 기업의 가격인상을 가계가 받아들일 여건이 정비됨에 따라, 일본경제의 디플레이션 탈출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평가임
- 이에 따라, 일본정부는 소비자물가가 5년만에 0.7%의 상승으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

## ㉔ 2014년도 경제전망

### □ 일본 정부와 민간의 온도차

- 일본정부는 12월 21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2014년도의 실질 경제성장율을 1.4%로 전망하고 있는데, 이는 0.7%~0.8% 성장을 예상한 민간 싱크탱크에 비하면 낙관적인 전망이다
- 일본정부는 개인소비와 설비투자의 호조에 의한 내수주도의 경기회복을 예상하고 있는데, 내년말 소비세율을 추가인상 (8%에서 10%)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있어 정책적 목표의 성격이 농후하다고 볼 수 있음
- 일본정부와 민간경제연구기관의 전망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개인소비임
- 민간싱크탱크의 전망치는 ▲0.7%~▲0.8%인데, 이는 소비세 증세에 따른 가수요의 반작용에 더하여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임
- 일본정부의 전망치는 플러스 0.4%로 근로자 수와 임금 모두 순조롭게 증가하여 증세 후에도 소비는 감소하지 않는다고 일본 내각부는 판단하고 있음

2013/2014년도 일본경제전망

	2013년도	2014년도		
	일본정부	일본정부	민간 싱크탱크	
			경제연구소	이코노미스트
실질경제성장율(%)	2.6	1.4	0.7	0.8
개인소비(증가율,%)	2.5	0.4	▲0.8	▲0.7
설비투자(증가율,%)	0.4	4.4	3.5	3.7
수출(증가율,%)	4.0	5.4	5.9	6.0
수입(증가율,%)	4.2	3.5	2.7	2.9
소비자물가상승율(%)	0.7	3.2	2.6	-
완전실업율(%)	3.9	3.7	3.8	-
환율(엔/미달러)	-	-	100~106	-
경상수지(조엔)	4.2	4.7	-	-
무역수지(조엔)	▲10.1	▲10.0	-	-

주: 민간경제연구소는 15개 연구기관 평균, 이코노미스트는 41명의 평균  
자료: 일본경제신문사, 내각부, 일본의 민간경제연구기관 발표자료

- 증세에 따른 소비감소 방지노력과 관련하여, 일본정부는 경영자와 노동자 대표로 구성된 노사정 회의를 통하여 기업들에게 임금인상을 촉구, 임금상승을 경기회복으로 이어지게 할 의도임
- 경제대책에 포함된 현금지급도 저축이 아닌 소비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임
- 일본정부의 시나리오는 경제대책과 정부의 임금인상 촉진 등의 정책효과를 민간보다 높이 평가하고 있음
- 민간싱크탱크가 예상하는 경제대책의 GDP증대효과는 0.5%로 일본정부의 0.7%를 하회하고 있는데, 그만큼 임금상승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

### □ 내수주도의 성장에 기대

- 2014년 8월 시점에서 일본정부는 1%의 실질 GDP성장을 예측한 바 있음
- 내수의 기여도 0.4%포인트인데 비하여 외수의 기여도가 0.6%포인트로서, 수출이 회복되어 투자와 소비를 자극하는 외수주도형을 예상하고 있었음
- 그러나 일본기업들의 해외생산 확대로 엔저하에서도 수출이 예상만큼 증가하지 않았음
- 이번 전망에서는 일본정부는 8월 시점보다 외수의 기여도를 낮추고 설비투자와 개인소비의 증가율도 하향수정
- 그러나 전체 GDP성장률은 1%에서 1.4%로 높였는데, 12월 5일 발표한 5.5조 엔 규모의 경제대책 효과 등이 경기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 것임
- 일본정부의 2014년도 실질경제성장율 전망치 1.4%의 기여도를 보면, 개인소비와 공공투자 등 국내수요가 1.2%,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 등 해외수요의 0.2%를 크게 상회할 전망
- 그러나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복구와 그동안 경제대책으로 공공사업 예산이 확대된 가운데, 현장에서는 일손 부족으로 공사가 여의치 않음
- 2012년도 결산에서 공공사업비 중 3.8조 엔을 사용하지 못하고 2013년으로 이월된 점에 비추어, 이번 경제대책에 의한 효과는 불투명
- 일본정부는 2014년 말에 소비세율을 2015년에 10%로 인상할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, 정부 일각에서는 2014년 소비세 인상의 역효과를 극복하고 안정 성장시나리오를 실현할 수 없게 되는 경우, 증세판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의견도 있음

## □ 국제수지 및 환율

- 무역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여, 무역수지적자 축소와 함께 경상수지흑자가 완만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 (명목GDP의 0.9% 정도)
- 엔화 환율은 민간연구기관들이 미달러당 100엔~106엔의 엔저가속을 예상하고 있는데, 다음 2가지 요인을 들 수 있음
  - 2014년 봄 이후 미·일의 금리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
  -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만약 2%의 물가상승 시나리오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, 필요에 따라 추가 완화 정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
- 무역수지는 2013년 11월까지 17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2013년 연간으로 과거 최대 적자폭을 기록할 가능성이 큼

## ③ 2014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과제

### 1) 경제운용의 기본방향

- 일본정부는 최근의 경기회복 움직임을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 일본부흥전략을 가속화할 방침임
  - 산업경쟁력강화법, 국가전략특구법의 적극적 활용, 정책자원의 중점적 배분 등에 의해 일본부흥전략에 포함된 액션플랜을 강력히 추진
- 동시에 정부, 경영자, 노동자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상호 연대함으로써, 기업수익 확대→임금상승과 고용·투자 확대→소비와 투자의 증가→가일층의 기업수익 확대의 선순환 실현을 목표
- 나아가 2014년 4월 실시하게 되는 소비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가수요와 그 반작용에 의한 감소를 완화하여 경기하강 리스크에 대응하는 동시에, 이후 경제성장력의 기반강화와 선순환 실현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, 경제대책을 포함한 정책 패키지를 실행
-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친 기초적 재정수지에 대해서는 2015년도까지 2010년도에 비해 적자의 대GDP비율을 반감, 2020년까지 흑자화를 목표
  - 2014년도 예산은 「당면한 재정건전화를 위한 중기재정계획」에 따라 사회보장지출을 비롯한 의무적인 경비지출도 포함하여 근본적으로 재검토한 후에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
- 일본 정부는 이상과 같은 대응을 통하여 디플레이션 탈피·경제재생과 재정재건화를 양립시킬 계획임
  - 일본은행에 2%의 물가안정 목표를 가능한 한 조기에 실현할 것을 기대

## 2) 과제

### □ 성장력 강화

- 일본정부가 발표한 경제대책가운데, 경기대책으로서 즉효성이 높은 공공사업은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한 인프라정비와 지진피해복구사업 등이 포함된 2조엔 정도의 규모임
- 과거의 소비세 증세 경험을 고려하면, 증세 직후 2014년 2분기에 예상되는 수요감소는 약 3.5조엔(가수요의 반동에 의한 감소분 3조엔, 실질소득 감소에 의한 감소분 0.5조엔)으로 예상되는데, 이번 경제대책은 증세 후 수요 감소분을 상당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규모로 평가되고 있음
- 그러나 경제대책에는 장기적인 성장력 강화에 필요한, 각종 기술개발 촉진과 해외사업 추진, 농림수산업의 고도화 등의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는데, 문제점이 있다는 평가임
  - 성장력 강화는 중요한 정책목표인데도 사업 내용을 보면, 긴급성이 높지 않은 것이 많고, 재정규율이 이완될 우려도 있는데다, 성장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개발 등을 위한 예산배분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임
  - 이에 기술개발과 산업구조고도화 등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인력배치·조직설계를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고용 및 농업분야 등의 암반규제를 포함한 규제개혁을 한층 가속화해야만 한다는 것임

### □ 해외생산 가속에 따른 제조업 공동화 방지

- 일본기업들의 해외생산 확대로 엔저 하에서도 수출수량이 증가하지 않음에 따라 일본 국내 설비투자가 부진하게 되는 상황이 확대되면 공동화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음
  - 과거와는 달리 최근 일본경제는, 엔저와 해외수요 확대가 국내경제에 파급되는 경로 중, 수출 및 국내생산 증가를 통한 경로가 약해지고 있음
  - 대신 수출채산성 개선과 해외현지법인의 수익환류에 의한 기업수익 확대가 주가상승을 가져오고, 주가상승에 의한 자산효과를 통하여 개인소비 등 국내 수요가 자극되는 경로에 의존하고 있음
  - 반면, 수출수량은 증가하지 않고 제조업의 국내생산도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업에 의한 설비투자는 확대되지 않고 고용수요도 발생하지 않음
- 이에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「민간투자 환기를 위한 성장전략」이 조기에 구체화되어, 외국에 비하여 열세에 있는 사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, 일본 국내에 새로운 분야의 비즈니스가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나가야만 한다는 지적임

## □ 임금상승

- 일본경제가 안고 있는 또 다른 과제는 임금상승임
  - 이토츠허경제연구소에 의하면, 2013년 10월 평균임금은 전년비 0.1%로 4개월만에 플러스로 반전되기는 했으나, 여기에는 소정외급여가 5.4%의 증가율을 보였던 영향이 크며, 임금동향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소정내급여는 0.4% 하락
    - 파트타임노동자의 비율 상승에 따른 임금하락 압력과 함께, 장기간의 디플레이션을 경험한 기업들이 임금상승에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
- 2013년 일본경제가 회복움직임을 보이고 보인 것은, 추가상승의 영향도 있으나, 비제조업의 개인소비 증가와 고용환경 개선이 상호 작용하는 선순환이 기능했기 때문임
- 그러나 임금상승이 진전되지 않으면, 선순환이 중단되어 버리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
  - 임금상승에 선행하여 물가상승율의 상승은 최우선과제인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과도기적인 움직임으로서 불가피함
  - 그러나 임금이 상승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물가상승율의 상승은 실질임금을 떨어트려 국민생활을 압박할 뿐이기 때문에 지속적이지 못함
  - 특히 2013년 후반에는 실질임금의 급속도로 하락함에 따라 2014년 이후에는 물가상승율에 맞추어 임금상승을 조기에 실현시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
    - 임금상승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일본경제의 회복이 지속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함